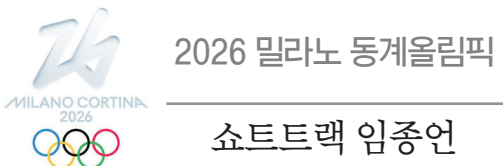


캐나다 팀 앞에서 위풍당당...신인의 패기로 세계 향해 질주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18·고양시청)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입국하기 전, 팬들로부터 많은 초콜릿을 받았다. 임종언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초콜릿을 먹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산데미 같은 선물을 받았다. 한 번도 올림픽 무대를 밟아본 적이 없는 임종언으로서 주변의 기대가 부담될 수 있지만, 그는 이런 상황을 즐길 뿐이다. 임종언은 4일(한국시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대표팀 훈련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별로 떨지 않는 것 같다”는 말에 “있을 것이 없는 신인의 패기로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며 “팬들이 주신 초콜릿을 먹으면서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은 처음 출전하지만, 조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가 열리는 날에 맞춰 몸을 천천히 끌어올리면서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같았다. 이날 임종언을 포함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이번 대회 최대 적수로 꼽히는 캐나다 대표팀과 같은 시간에 배정돼 함께 훈련했다. 훈련엔 임종언의 최대 경쟁자로 평가되는 윌리엄 단지누(24)도 참가했다. 단지누는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투어 1~4차 대회에 걸린 남자부 개인전 12개 금메달 중 7개를 쓸어 담으며 두 시즌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한 세계 최강자다.

IOC 선정 ‘라이징 스타’ 10인에 팬들 기대 즐기며 첫 올림픽 준비 경기 날 맞춰 컨디션 관리 집중

그러나 임종언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침착하게 훈련에 임했다. 그는 “전락을 노출하지 않게 하면서도 캐나다 대표팀이 계주에서 어떤 호흡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팀은 매일 조직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며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임종언은 지난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부 전체 1위를 차지한 뒤 ISU 월드컵투어 1-4차 대회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한국 남자 대표팀의 에이스다. 그는 2일 올림픽 홈페이지가 선정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라이징 스타’ 10명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임종언은 이에 관해 “매우 신기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활짝 웃었다. 함박웃음을 짓는 임종언의 얼굴에선 작은 부담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임종언이 출전하는 쇼트트랙은 10일부터 펼쳐진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쇼트트랙 임종언이 캐나다팀과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밀라노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코번트리 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번트리 위원장 “올림픽 종목, 시대 흐름 맞춰 변화 필요”

IOC 총회에서 다양한 논의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올림픽 종목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불편하더라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에서 “세상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역시 바뀌고 있다. 선수와 파트너, 팬들의 요구가 진화하는 것에 맞춰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것이 ‘미래를 위한 준비(Fit For The Future)’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코번트리 위원장은 올림픽 정신을 발전시키고자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시작, 다양한 분야에 걸쳐 논의에 나섰다. 그중 하나가 올림픽 종목에 대한 것으로, 최근엔 동계 올림픽의 흥행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하계

종목의 변형이나 실내 종목의 겨울 축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번트리 위원장은 “파리(2024년 하계 대회)에서 보았듯이 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지만, 이것을 유지하려면 계속 발전해야 한다. 그 시작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될 올림픽 자체의 미래, 특히 종목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한 그는 “무엇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때로는 더 중요하게는 무엇이 그렇지 못하기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며 기존 종목의 제외 가능성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어 “올림픽이 전 세계 젊은이에게 영감을 주는 무대로 남도록 그들의 가치관과 진정성, 진실된 무언가들을 향한 열망을 반영해야 한다. 전통과 혁신,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스포츠 종목과 경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하계 올림픽에서는 젊은 층 공략을 위해 스케이팅보드와 3대3 농구, 브레이크 댄스 등이 정식 종목으로 도입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직전 열린 이번 총회에서 코번트리 위원장은 ‘정치’가 아닌 스포츠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스포츠 단체다. 정치를 이해하고 고립된 채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핵심은 스포츠”라면서 “스포츠는 중립적인 장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선수가 정치나 정부의 분열에 구애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은 인류 최고의 모습을 기념하는 축제다. 모든 배경과 문화권의 선수들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분열된 세상에서 올림픽이 계속 영감을 주고 화합을 도모하며 희망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1년 만의 설욕’ 시애틀 vs ‘왕조 재건’ 뉴잉글랜드 지상 최대 쇼 슈퍼볼 ‘개봉 박두’

9일 왕좌 놓고 격돌

전 세계 미식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지상 최대의 쇼’가 다가왔다. 오는 9일 오전 8시 3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리바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프로풋볼(NFL) 제60회 슈퍼볼(Super Bowl LX)은 11년 묵은 ‘복수극’과 ‘역사의 반복’ 동상이몽을 꿈꾸는 두 팀의 대결이다. 이번 슈퍼볼 대전은 내셔널풋볼 콘퍼런스(NFC) 1번 시드 시애틀 시호크스와 아메리칸풋볼콘퍼런스(AFC) 2번 시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맞붙는다. 양 팀은 정규시즌에 나란히 14승 3패로 각 콘퍼런스를 지배했다. 미식축구 팬들이라면 2015년 2월 제49회 슈퍼볼의 마지막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당시 시애틀은 경기 종료 직전 1야드를 남겨두고 러닝백에게 공을 주는 대신 패스를 선택했다가 뉴잉글랜드 코너백 맬컴 버틀러에게 인터셉션을 당해 다 잡았던 우승 트로피를 뉴잉글랜드에 내줬다. 세월이 흘러 그라운드의 주인공은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지략 대결을 펼쳤던 피트 캐럴과 빌 벨리치 감독은 이제 없다. 시애틀은 젊은 수비 천재 마이크 맥도널드 감독이, 뉴잉글랜드는 선수 시절 패트리어츠 왕조 주역이었던 마이크 브레이를 감독이 탐을 이긴다. 시애틀은 2014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슈퍼볼 우승을, 브레이를 앞세워 역대 최다인 슈퍼볼 6회 우승 업적을 일궈낸 뉴잉글랜드는 암흑기를 끝내고 6년 만의 우승을 노린다. 이번 슈퍼볼 승패의 열쇠는 쿼터백이 쥐고 있다. 시애틀을 공격을 이끄는 샘 다널드(미국)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썼다. 과거 뉴욕 제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 등에서 실패한 유망주 취급을 받았던 다널드는 2025시즌 시



2015년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의 승리를 이끈 맬컴 버틀러의 인터셉션. /연합뉴스

애틀에 등지를 뜬 뒤 기량이 만개했다. 그는 정규시즌 4200야드 패싱과 35개의 터치다운으로 팀을 NFC 최정상에 올려놓았다. 다널드에서 잭슨스미스는지그바로 이어지는 쿼터백-와이드 리시버 호흡은 리그 최강 수준이다. 반면 뉴잉글랜드는 2년 차 쿼터백 드레이크 메이(미국)의 패기에 기대를 건다. 메이는 톰 브래디 이후 오랫동안 쿼터백 부재에 시달리던 뉴잉글랜드가 찾은 확실한 해답이다. 그는 큰 키(193cm)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어깨와 침착한 경기 운영 능력으로 팀의 정규시즌 14승을 견인했다. 라몬드레 스티븐슨(미국)이 이끄는 러닝 게임이 메이의 어깨를 가볍게 해준다면, 경험 부족이라는 약점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경기의 백미인 하프타임 쇼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세계적인 라틴 팝 스타 바드 비니가 장식한다. 최근 몇 년간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니는 지난 2일 열린 제68회 그라미 시상식에서 라틴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앨범’을 거머쥐었다. /연합뉴스

한태희 8단, 임신 등극...한국기원 현역 9단 111명

KB국민은행 바둑리그서 승단

한태희 8단이 입단 16년 만에 벼룩에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임신(入神·9단의 별칭)에 올랐다. 한국기원은 한태희 8단이 1월 22일 열린 2025-2026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오병우 5단을 상대로 백 불계승을 거두며 승단점수 4점을 추가, 누

적점수 243점으로 9단 승단 기준인 240점을 넘어 9단으로 승단했다고 4일 전했다. 한태희 9단의 승단으로 한국기원 소속 현역 9단은 111명이 됐다. 또 김수진 6단이 구체(具體·7단의 별칭), 윤지희·김강민 3단은 소교(小交·4단의 별칭)로 각각 한 단씩 승단했다.

김성재·이민석·이나경·홍세영 2단은 투력(鬪力·3단의 별칭)으로, 박지영·윤서원 초단은 약우(若愚·2단의 별칭)로 각각 승단했다. 한국기원은 종합기전(KB리그·중국리그 포함)에서 승리 시 승단점수 4점, 한국프로기사협회리그와 제한기전(신예·여자·시니어기전)에서 승리 시 1점을 준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 공모전시

미술완보 : 민은주 개인전

일시 : 2026-01-23(금)~2026-02-22(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예술의전당 개관 35주년 기념

2026 그랜드 오케스트라 위크

일시 : 2026-02-03(화)~2026-02-06(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6